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황창규 KT 회장,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릴레이 성화 봉송



회장님이 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계 회장들이 직접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왼쪽부터)이 13일과 14일 서울에서 진행된 성화 봉송 행사에서 주자로 나서 각자 맡은 구간을 뒀고 있다. 뉴스1

■ 1 대표팀 사기 저하 ■ 2 팀워크 부조화 ■ 3 엔트리 확대 불투명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23명 엔트리 30명 확대, 같은 조 국가 수용할 지 의문
4년간 땀흘린 선수들, 출전시간서도 피해 불가피할 듯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친환경 상 책걸음



산림조합중앙회는 복권기금으로
지역·동생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가정 등에
지역 나무로 만든 친환경 책상 등 제작하여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복권기금보조금증서




789 회 당첨번호 (추첨일: 2018년 1월 13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6	7	12	19	45						38
1등 총 당첨금											
1	7	1	1	1	4	6	5	2	3	7	5

※ 1등 총 당첨금은 1월에 당첨된 총 당첨금액의 45%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부분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지	15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지 + 2등 보너스숫자	7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2%
3등 5개 숫자일지	2,437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2%
4등 4개 숫자일지	118,089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지	1,868,863	5,000원

※ 1등 당첨금은 1개월간 당첨금관리 기간입니다. (내국 통화 만)



· 나·눔·도·로· 플랜트 : 지역별 1598-6450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 후부터 1년까지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lotto.co.kr

**복권 구입시
유 의 사 함**

· 복권은 1만원 1회 10만회까지 구매가능 수 있습니다. · 중상연은 구매를 하여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선전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합법사용을 원 금사(소셜)는 1865-0112 www.gokupk.or.kr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30일도 남게 놓지 않았다. 대회 준비만으로도 빠듯한 이 상황에서 때 아닌 '남북 단일팀' 논란이 뜨겁다. 평화올림픽을 위한 거시적 행보나,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생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13일 IOC 본부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국하기 위해 경유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국내 취재진에 "이미 상정된 제안이기 때문에 IOC에서 고려 중이다"고 말하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가 재차 확인됐다.

남북이 단일팀 구성을 협의하고 있는 중목은 여자 아이스하키다. 우리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8강에 입하는데, 북한 대표팀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출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북한 선수 일부가 우리 팀에 합류해 뛰는 방식이 돼야 한다.

정부는 기존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엔트리 확대' 방안을 IOC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엔트리는 총 23명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엔트리를 30명 이상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엔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4년간 이 순간을 위해 피땀을 흘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대치에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릉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친선전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리 확대를 위해서는 IOC 뿐만 아니라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에도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경기 운영 특혜인 엔트리 확대를 개최국에만 허용해주는 것은 서로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B조에 속해 있는 일본, 스위스, 스웨덴이 이를 저항 없이 받아들

일지도 의문이다.

이보다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우리 대표팀의 '사기저하'다. 대표팀 선수들은 평생 한번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스하키 올림픽 출전을 위해 무관심 속에서 4년간 구슬땀을 흘렸다. 당장 대회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

에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면 북한 선수들과 새롭게 호흡을 맞춰야 한다. 교체 출전이 잦은 아이스하키의 특성 상 출전시간 자체도 북한 선수들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힘들 전망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탁구 현정화-이분희, 91년 중국 꺾고 우승

남북단일팀 출전 단 두차례 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사례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탁구와 축구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부신 성과를 거뒀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

다. 그해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와 포르투갈에서 펼쳐진 20세 이하(U-20)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였다.

1991년 4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남북단일팀이 구성됐다. 남한의 현정화, 북한의 이분희를 주축으로 한 단일팀은 여

1991년 6월, 세계청소년축구 8강 합작

자단채전에서 '만리장성'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며 우승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의 일화는 2012년 하지원-배두나 주연의 영화 '코리아'로도 제작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돌풍은 1991년 6월 세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로 연

장됐다. 북한 안세옥 감독, 남한 남대식 코치에 18명의 선수로 구성된 단일팀은 조별리그에서 강호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는 등 1승 1무1패, 조 2위로 8강까지 올랐다. 박종환 감독이 이끈 '붉은 악마'가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달성한 4강 신화를 잇는 이번이다. 꽤 거였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주최

·

마중여행사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혼섬, 이르쿠츠크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018년 2월 5일(월)~12일(월) 2차 2018년 2월 20일(화)~27일(화)

◆ 주요일정

제1일

인천공항 출발 →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도착(약 2시간 소요) → 블라디보스토크 역 출발(TSR)
(이르쿠츠크항발 약76시간분 소요/약4, 115km)

제2일

카림스카야(TSR) → 치타(TSR) ※눈덮인 광활한 자작나무와 전나무 등이 어우러진 시베리아 대평원 감상

제3일

울란우데(TSR) → 이르쿠츠크(TSR) ※얼어붙은 바이칼호수변 광활한 자작림, 브리아트 설정장관 감상

제4일

이르쿠츠크 역 도착(TSR) → 호텔이동(전용버스)

제5일

이르쿠츠크 → 우스피야르다(전용버스 약1시간 소요) ※브리아트 민속박물관 관람, 브리아트 민속공연 관람 →
바얀다이 → 옐란치 → 사후르따(MRS선착장) → 알혼섬 후지르마울(우아직)

제6일

알혼섬 북부빙상투어(우아직 4륜구동 차량) → 사라예스끼(뉴르간스키[악어바위, 함상같은 고드름] →
삼형제 바위[얼음꽃발] → 하보이 꽃[옥빛의 얼음감상] → 후지르마울

제7일

알혼섬 후지르마울(우아직) → 사후르따(MRS) → 이르쿠츠크 시내관광(전용버스)

제8일

이르쿠츠크 공항 출발(약3시간15분 소요) → 하바롭스키 공항(약3시간 소요) → 인천공항 도착

※국제선 왕복항공료 및 택스, 유류할증료, 시베리아횡단열차(TSR), 식사(10식), 열차-보급식(9식), 전용버스, 프로그램상 입장료, 강사, 인솔자(T/C), 현지가이드, 여행보험

- 01 겨울 횡단열차로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가는 체험(약4,115km)
광활한 시베리아 설원과 타이가 숲을 조망...
- 02 겨울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정태언교수의 실감나는 인문학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대학원,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러시아문학전공, 문학박사학위
- 03 바이칼 알혼섬 일몰과 별자리 감상, 사계절 중 별자리를 가장 잘 볼 수있는 계절
쏟아지는 별을 보며 새해 소망빌기...
- 04 민족의 시원설 알혼섬 "부르한바위"와 언 호수 바이칼 알혼섬 일주 관광
투명하게 얼어붙은 바이칼호수의 특별한 방문투어
- 05 이르쿠츠크 시내답사
데카브리스트박물관, 즈나멘스키 수도원, 골작레독종상, 톱나무집마을 130방가 ※러시아전통 <반아체럼>과 러시아 꼬치구이 <샤슬릭>